광주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 방철호)은 25일 오후 광주공원 앞 광주천변에서 치어 방류〈사진〉와 정화활동, 가족보물찾기 등 '광주천 사랑 범시민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앞서 푸른광주21협의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북구 동림동 동천마을 앞 광주천 둔치에서 주민과 회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연과 영상물 상영 등 '광주천 문화제'를 개최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하수도로 버려졌던 수원 1만5천t 발굴

광주천 공급 수질 개선

수량부족으로 메말라가는 광주천에 자연수 1만5천여톤이 공급돼 수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시가 그동안 하수도로 유입돼 사실상 버려졌던 수자원을 발굴해 광주천에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광주천의 유지용수를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튼 것이다.

맑은 물 되찾기 TF팀 상류 8곳서 찾아내

하루 수량의 33%…수심 2~3㎝ 높일 양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수질보전과를 중심으로 지난 4월 구성된 '광주천 맑은 물 되찾기 TF'가 최근 광주천의 상류인 증심사천과 소태천 등 모두 8곳에서 유실되는 샛강물과 지하수 1만5천톤을 발굴, 이를 광주천으로 끌어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수자원 1만5천톤은 현재 광주천의 수량(1일 4만5천톤)의 33%에 해당하는 양으로 현재 10㎝인 광주천의 평균 수심을 2~3㎝ 가량 끌어올릴 수 있는 규모다.

TF팀이 발굴한 자연수원은 ▲증심사천 상류(상가단지), 성촌마을, 홍림교 등 3곳 ▲용산 차량기지 앞 하천, 광주천 등 2곳 ▲문화전당·양동시장역사·금호생명 빌딩 지하수원 등 8곳이다.

TF팀은 그동안 광주 시내 현장 답사, 하수관 CCTV 조사 등을 통해 이들 수자원이 오·폐수와 섞여 하수관을 통해 유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 이를 광주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자연수를 차단해 물길을 광주천으로 돌림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과 비용을 줄이고 광주천의 수량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우선 광주천의 수위상승과 수질개선 효과는 물론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사업비 65억원, 하수처리장 운전비 절감 등 매년 5억3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추진중인 광주천 하수유입구 정비사업, 광주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에 자연수 유입방안을 적극 반영해 올 연말까지 9천920톤을 광주천에 흘러보낼 계획이다. 나머지 5천520톤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조기에 시행해 내년 말까지 광주천으로 끌어올 방침이다.

시는 이 수량이 광주천 정화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장고도처리시설 사업이 완료돼 광주천에 공급되는 1일 10만톤의 수량에 더해져 광주천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북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생활체육, 문화·예술에 편중

최근 3년 218개 프로그램 중 70% 차지

광주시 북구 동(洞)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대다수가 생활체육과 문화 예술 및 취미교실 강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시 북구의회 김동찬 의원이 발표한 '광주시 북구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비교분석 및 활성화 방안'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운영된 218개 프로그램 중 생활체육과 문화 예술 및 취미강좌가 전체의 70.0%(153개 강좌)를 차지했다.

이어 외국어·인터넷·취업관련 기술교육 등 주민교육 14.8%(32개 강좌) ▲소년 공부방·작은 도서관·노인대학·컴퓨터 교실 등 지역복지 12.6%(27개 강좌) ▲도·농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중고물품 교환센터, 생필품 공동구매 등 사회진흥 1.3%(3개 강좌) ▲생활정보지 제공·바자회·재건축 설명회 필요 시 회의실 개방 등 주민편익 1.3%(3개 강좌) 등의 순이었다.

특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생활체육 종목으로는 헬스와 탁구, 배드민턴, 요가,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한국전통무용 등이었다. 또 문화 예술 및 취미 강좌에서는 서예교실과 꽃꽂이, 종이접기, 노래교실 등이 주민들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를 모태로 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다양한데, 생활체육 및 문화 여가 기능 한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 아쉽다"며 "지역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포럼을 만들어 다양한 기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어린이 교통체험관 전시물 설치 공모 (주)아텍 작품 선정

광주시가 첨단지구 어린이 교통공원내에 추진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전시물 제작·설치 현상공모에서 (주)아텍의 작품이 협상 1순위로 선정됐다.

이번 현상공모에는 모두 4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주)아텍의 작품은 '아·애·이·오·우' 다섯가지 테마로 다양하고 특이한 체험과 신나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는 다음달 초 공식 계약을 마치고 실시설계와 시공을 거쳐 내년 3월 완공할 계획이다. 체험관 건립에는 2억7천만원이 소요된다.

시는 개원 10년이 지나 실내 전시시설이 노후화된 어린이교통공원내 1층 전시실을 리모델링해 교통안전체험관으로 꾸미기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

대인시장 현대화 예산 허술한 집행

동구, 엉뚱한 단체에 수억원 지원…상인들 반발

광주시 동구가 대인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한 예산이 잘못 집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광주시 동구청과 '대인시장상가번영회' 등에 따르면 동구청은 지난해 2월부터 2년여 동안 '대인시장 상가상인회'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수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내용은 시장 내 공동 냉동창고, 상인교육장 설립비 5억원과 지역 특산품판매장 운영 1억4천만원, 화재방지 CCTV 설치비 1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예산 15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에 완공한 공영유료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운영해 왔고, 재래시장 홍보사업비 등으로 1억여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기존 대인시장 상인들을 대표하는 '번영회'가 있었음에도 동구청은 영리법인인 '상인회'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대인시장 상인 267명으로 구성된 '번영회'는 지난 1976년 이후 대인시장 상인들을 대표하는 기구였지만 지난해 2월 현 번영회장인 J(61)씨가 임원 7명과 함께 합자회사인 '상인회'를 또 설립하고 회장직을 겸했으며, 동구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상인회'에 예산을 지원했다.

상인들은 최근 두 조직의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J씨와 상인회 임원들을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J씨 해임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동구청 한 관계자는 "회장이 동일인물인 탓에 같은 성격의 단체라 판단하고 예산을 지원했다"며 "재래시장 활성화가 예산지원의 목적인 만큼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두 조직 간의 갈등이 해소되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동구 '유-케어 사업' 세계 건강도시 총회 호평

유태명 동구청장〈사진〉이 지난 25일 일본 이치가와시 문화홀에서 열린 '세계 건강도시 연맹 국제대회'에 참석해 동구에서 추진하는 'U-City 안전망 시스템 구축'(실시간 응급체계 관리시스템) 사례를 발표했다.

아시아 15개국 150개 도시 단체장과 공무원 2천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중국 등을 대표하는 9개 건강도시 관계자들이 건강도시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U-City 안전망 시스템 구축사업'은 관내 독거노인, 심장질환자, 거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선통신이 가능한 유-케어(U-care) 기기를 24시간 착용시켜 맥박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통보돼 신속한 응급진료를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안현주기자 ahj@